

화장품성분중 살균보존제의 위해성평가

김규봉[†]

단국대학교

(kyubong@dankook.ac.kr[†])

2011년 화장품법이 개정된 이후, 국내 화장품 원료 관리시스템이 Positive 제도에서 Negative 제도로 전환되었으며, 이 제도가 시행된 후로,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고 있다.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연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, 국민에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(식약처)에서는 체계적인 화장품 위해 평가 및 위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. 화장품성분중 살균보존제 성분은 인체위해성으로 인하여 사용 한도를 지정하여 그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. 본 연자는 살균보존제중 클로로아세트아마이드와 페녹시에탄올의 인체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위해성관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.